

구원의 의미와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통 증거들

성경말씀: 요3:1-8

오늘은 기독교의 핵심인 구원과 구원의 증표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이런 저런 이유로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 자라나는 아이들, 교회 회원, 새 가족 오리엔테이션, 침례 받으려는 분들 왜 예수님을 믿는가? 구원받으려고(영생), 이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고상한 삶 등은 차후 문제 구원은 무엇을 말하는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는가? 위기에서 구원을 받는다.

인간의 공통 위기: 죄와 사망, 예수님의 이름 의미(마1:21)

구원과 관련하여 두 개의 극단이 있다: 1. 평생 교회 다녀도 “구원 받았느냐?”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었다는 분, 2. 성경과 교회 관련 모든 것을 오직 구원의 관점으로만 보는 분, 3. 구원과 성화의 균형 개인적으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 증거 결여를 본다. 오늘은 삼분의 일은 구원의 의미, 삼분의 이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 증거, < >

구원이란?

요한복음 3장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이야기

그러나 익숙한 데도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다.

니고데모는 평생 종교인, 유대인들의 랍비, 치리자(1), 그런데 구원을 못 받았다(*). 마음에 갈등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보고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하심을 마음에 확신(2), 밤에 찾아오 이미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 만나자마자 정곡을 찌름(3), 니고데모의 대답(4) 예수님의 말씀(5-6), 다시 태어나야 한다(born again), 구약에 없는 말, 신약(요3:3, 7; 벰전1:23) 원래 again은 ‘위로부터’라는 뜻이다. 모든 사람은 하늘 아래 땅에서 태어나 존재한다.

그런데 아래에 있는 상태로는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므로 ‘하늘 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이것을 물과 성령(5), 육과 성령으로 표현하였다(6). 즉 다시 태어나는 일은 성령님에 의해 가능하다. 성령님의 일(8),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의 확신이 있다(요일5:12-13).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에 의해 다시 태어나는가?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 산 기도, 오순절 은사 집회, 교회 다니고 헌금하면 구원, 아니다.

벰전1:23,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시 태어난다. 무조건 믿을 수는 없다. 복음을 들어야 한다.

복음: 죄, 죄인, 죄의 해결책이 창조물 가운데는 없다는 사실, 창조자 하나님에게 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보여 주시기 위해 성육신, 십자가 죽음, 모든 죄 제거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결과 죽어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본성을 입고 하나님의 왕국에 거한다는 사실 이것을 듣고 이해하고 사실로 받아들이며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한다.

바로 이때에 성령님에 의해 다시 태어나는 일이 발생한다. 롬10:9-10, 13, 17

사람은 인격체: 지성의 존재, 이 일은 지성을 통한 의지의 작용, 감정을 자극하면 안 된다.

우는 사람도 있고 울지 않는 사람도 있다. 우느냐 안 우느냐는 감성의 문제, 감성은 확실하지 않다.

구원의 의미

1.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의 새 아기로 태어나는 것이다(벰전2:2). 아무리 나이/학식/재물이 많아도
2.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이다(고후5:17). 창조: 무에서 유로 만드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새로운 사람이 생겨난다. 그전에는 옛사람 하나만 있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
3.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는 가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포도나무 뿌리가 공급하는 영양분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구원 전에는 마귀의 나무에 달림, 잘려져서 예수님에게 접붙여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들을 이해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어떤 증거들이 나오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들

엡2:8-10,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한 행위가 있다. 이미 정해 놓은 패턴이 있다.

1. 아기가 된다. 아기는 어른이 되는 숙명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자라야 한다.

자라려면 젖을 필요로 한다. 그 젖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벧전2:2),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심히 사랑하게 된다. 아니 사랑이라는 말보다는 필수품이 된다. 신구약 성경을 읽게 된다.

첫 번째 증표: 말씀을 사랑하는가? 필사적으로 말씀을 먹으려고 달려드는가?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것을 사랑하는가?

2. 아이는 같은 또래의 아이들과 노는 것을 즐거워한다. 거기서 어울려 지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으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가는 것을 심히 좋아하게 된다. 주일이 오는 것을 손꼽아 기다린다.

두 번째 증표: 같은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가기를 소망하는가? 깃털이 같은 새들이 모이게 된다.

3. 옛 것들은 지나가고 새 것들이 되었다(고후5:17). 입맛이 달라진다. 마귀와 세상과 육신의 영양분을 탐구하려 다녔다. 이제는 예수님의 영양분이 맛이 좋다.

세 번째 증표: 욕구가 달라진다. 세상이 칭찬하거나 좋아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기쁨을 추구하는 쪽으로 바뀐다. 일요일에 놀러가는 것을 좋아했다. 그런데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헌금 드리는 것,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나를 기쁘게 하는가?

4. 눈이 바뀐다.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세계관 역사관 정치관의 변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5. 생각(mind)이 바뀐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게 된다. 이것은 주로 의지적인 것, 이 일 역시 성령님의 조명하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려 한다.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아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고 적극적으로 옳은 것을 추구하게 된다.

습관적인 죄를 버리게 된다. 30년 늙음 청산

6. 마음(heart)이 바뀐다. 마음은 주로 감정적인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을 나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이 미워하는 일을 나도 미워하게 된다. 역시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

7. 입이 변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선한 말들이 나오게 된다(엡5:1-7).

8. 귀가 변하게 된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된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가 없다.

9. 손과 발이 변한다. 그래서 행동과 태도의 변화가 생긴다. 가야 할 데 가서는 안 될 데가 구분된다. 실제 삶에서 믿음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

10. 가족과 친구들이 바뀌게 된다. 이제 새로운 가족들을 갖게 된다. 어찌면 같은 어머니 태에서 나온 형제/자매들보다 더 친밀한 관계,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변한다.

한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형제/자매들을 미워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변하게 된다.

11. 가정생활에 변화가 생긴다: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문제

날이 가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는 사례들이 성경에 많다.

히브리서를 읽어 보라. 이집트 탈출한 이스라엘, 구원받은 사람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히4:1-2; 5:12-14), 마땅히 누려야 할 복을 누리지 못함, 믿음대로 행하지 아니하다가.

결론

나는 확실히 성경 말씀 즉 복음을 통해 구원받았는가?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가? 예수님을 아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가? 부활의 소망을 아는가?

입맛의 변화, 마음과 생각, 눈과 귀, 손과 발의 변화,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는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쳐지고 있는가? 이런 변화가 없으면 구약 시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 나를 낫추어야 한다. 구원의 기쁨 속에서 변화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